

“보험은 사랑, 신념 실천하고 미래 주역에 아낌없는 투자 ‘더 나은 삶’ 만들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ABL생명

오는 2024년 ABL생명은 한국 시장 진출 70주년을 맞이한다. 1954년 국내 금융 시장에 첫발을 뒀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사업 방향은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ABL생명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험은 사랑’이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은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의 주역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기부 성과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995년 9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서 28년간 약 25억원을 기부했다.

총 1966명의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2021년 기준 후원을 받은 아동 93%의 건강이 호전됐다. 어린이 51%는 검사비를 지원받아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 어린이재단 후원 10년째

지난 2013년 5월을 시작으로 어린이재단 세 곳과 제휴를 맺었다. 유력 사회복지기관인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3곳이다. 협약과 함께 회사 자체 기부 프로그램인 ‘메이크 어 도네이션 (Make a Donation)’ 운영을 시작했다.

메이크 어 도네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은 각 어린이재단과 연결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성한 기부금은 빠짐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올해까지 각 기관에 전달한 합산 기부액은 약 36억원이다.

굿네이버스와는 ‘희망나눔 방학교실’을 진행한다. 방학기간 중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방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미래와 희망’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의 ‘한 생



(위)사내 기부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아 ABL생명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BL생명 사랑의 봉사단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 실시하고 있다. /ABL생명

굿네이버스 등 어린이재단 3곳과 제휴... 합산기부 36억 설계사, 신계약 1건당 1000원, 임직원들 매월 기부 동참 30여년 어린이회장단에 금융교육... 누적 1만5000여명 어린이 중심 봉사 확대... 자립준비 청년에 1000만원 전달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송민용 ABL생명 최고 재무책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BL생명

명 살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세 프로그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 회사는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설계사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계약 1건을 체결할 때마다 1000원씩 기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전국 어린이회장 모아 금융교육

ABL생명은 전국 어린이회장단 중 신청자를 모아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50여명을 자사 연수원으로 초청한다. 지금까지 총 1만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금융교육과 함께하는 지도력 교육은 회장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양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에는이형래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원로교사 겸 이화여대 겸임교수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해력’ 강의와 함께 ‘한국 홍보 전문가’로 불리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 등으로 캠프를 구성했다.

ABL생명 임직원도 교육 현장에 투입했다. 김현수 영업교육부 부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은재경 ABL생명 영업채널담당임원 전무는 “21세기의 리더는 모든 구성원의 다채로운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제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기부대상...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ABL생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나눔의 날’로 설정했다. ‘ABL생명 사랑의 봉사단’에 지원한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어린이뿐 아니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나눔, 김장나눔 등의 봉사활동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을 청소년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추가 결연을 맺었다. 복지관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7월 단행한 나눔의 날 또한 청소년 대상 봉사로 기획했다. 강동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인 주몽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주몽재활원은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과 재활훈련을 지원한다. 지난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10여명은 시설 내부의 경사로,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백악관, 설리반-왕이의 몰타미-중 회담사실 발표 “양국관계 유지 책임”
▲美 연준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금주 G20 절반 금리 결정 /사진 뉴시스

▲미중, 첩보 ‘그림자 전쟁’...“냉전시대 미·소 갈등보다 광범위”
▲日記시사, 유엔총회서 안보리 개혁 주장 방침...핵군축 필요성도



▲중국 군용기 28대, 대만 주변서 장거리 비행훈련 도발 /사진 뉴시스
▲“北, 김정은 방리로 정찰위성 궤도 안착 달성할 가능성”